

1조원을 잡아라

지역건설업계 '영산강 살리기' 수주 올인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서 건설업체간 공사 수주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8일 국토부와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익산청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로 2조 6천461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총 사업비 1조3천 583억원을 들여 10개 공구에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청은 이 가운데 2개 공구(4천억원)를 턴키 방식으로, 나머지는 일반 공사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발주처·공사 방식 등을 검토중이다. 농림부도 총 사업비 1조3천866억원 가운데 영산강 하구둑의 배수문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 2천억원 규모의 턴키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턴키 공사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지역업체를 20%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업체 수주액은 1천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일반공사도 40%까지 지역업체의 참여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대로라면 익산청이 9천583억원

의 40%인 3천833억원, 농림부 1조1천866억원의 40%인 4천746억원 등 8천579억원이 지역업체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공사 방식, 발주 규모 등에 따라 지역업체 수주액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본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의 지역 건설업체 수주액은 대략 9천 779억원 선으로 추산된다.

이에따라 지역 건설업체도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돌입했다.

금호건설의 경우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사 시공 경험·노하우 등을 살려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 금호는 사업 규모가 큰 낙동강 살리기에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금광기업도 기술력과 시공력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공사를 비롯, 최자가 공사 등 일반 공사에도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수주전에 뛰어 들었다.

새천년종합건설은 수주에 유리한 대형 건설사들과 손을 잡기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환경사업팀

을 별도로 꾸려 하수처리장 수주 등 틈새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이외 상당수 지역 중소 건설사들도 영산강 살리기 본 사업과 직접 연계 사업을 수주하면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풍부한 시공 경험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짜집기' 및 '뭉치기'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턴키 공사의 경우 자금력과 기술력이 풍부한 수도권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일반 공사도 대규모로 진행되면 지역 업체들의 참여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당초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 대기업 살리기'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측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 경제 살리기'라는 취지대로 진행되려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지역 업체 참여 폭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8일 오후 광주신세계 이마트 식품매장을 찾은 고객이 과실주에 필요한 재료를 고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디자인센터 개발 '하우스 앤·렌지후드'

우수디자인마크 획득

광주디자인센터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09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주택설계비용품류 부문이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광주지역 하우징자재 통합브랜드인 '하우스앤'이, 제품디자인(주택설계비용품류)에서는 '렌지후드'가 각각 우수디자인(GD) 마크를 획득했다.

이번에 GD마크를 획득한 작품들은 광주디자인센터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 중인 광주지역 하우징 자재산업 육성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광주디자인센터는 "하우징자재 특화브랜드 육성을 위한 하우스앤은 새로운 디자인, 건축·건설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컨셉트를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디자인센터는 지역 하우징 관련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렌지후드, 냉동고, 방화문, 표면처리, 인테리어소품 등 신제품 혁신모델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유통업체 지역제품 구매 늘려라"

광주시의회 의원 촉구

광주시의회 진선거 의원(북구1)은 8일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생산제품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광주지역 대형 유통점은 지난 2005년 15개에서 현재 18개로 늘었고 동네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SSM)도 5개로, 전체 대형 유통업체는 인구 7만8천여명당 1곳에 달한다"며 "그러나 대형 유통점의 지역상품 구입은 광주·전남지역 합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더구나 모 대기업 총수가 전국에 30~40개의 슈퍼마켓

을 출점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형 유통점 납품은 절실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지역 생산제품 판매는 유통업체들의 의지가 중요한 데 상당수 유통업체들이 지역상품 바이어를 두지 않는 등 소극적이다"며 "광주시는 지역상품 전시 박람회 등을 여는 등 정책 대안을 마련,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상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의 3천㎡ 이상 대형 유통업체는 지난해 12월 현재 백화점 5곳, 할인점 13곳, 전문점 1곳, 소형센터 4곳 등 총 23곳으로 점포당 인구수로 볼 때 7만8천여명당 1곳으로 부산(10만9천여명)·대구(10만4천여명)·울산(7만9천여명)보다 점포가 많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우수 中企 상품 다 모였네 10~14일 현대백화점서 특별전

광주·전남중소기업청(청장 임충식)이 10~14일 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 상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지역 우수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현대백화점 광주점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가 업체는 합초분말·합초효소를 생산하는 ㈜에이치씨바이오텍, 골프장갑 생산업체인 제일에스지, 떡 전문업체 시루엔, 슬차·

매실차·오디를 생산하는 백양영농조합법인 등 모두 10개사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참가 기업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우수 상품에 대해서는 입점을 추진하는 등 판로확대 기회도 제공한다. /이은미기자 emlee@

과실주 바람 ... 설탕·소주 판매 급증

대형마트에서 설탕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과실주용 과일인 매실과 오디, 산딸기 등이 제철을 맞아 본격 출하되면서 과실주를 담그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설탕 매출이 1천4백20만원으로 전달(4월 27일~5월10일까지)보다 4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담금용 소주도 전달(4월 27일~5월10일까지)보다 1.7배 늘었으며, 과실주

병도 4.2배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매실주 같은 과실주를 직접 담가먹으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6월 들어 설탕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최대규모인 해남군 산이면 보해 매실농원은 최근 매실 수확에 들어가 20일까지 모두 550t을 수확할 예정이다. 10kg당 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61-532-4959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산행 안내

산행 안내, 행사 정보, 지역 소식 등 다양한 소식을 담은 텍스트 영역.

주요 광고 및 정보:

- 현대백화점:** 6.18 행사, 30% 할인 등.
- 국제보청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캠페인.
- 기타:** 부동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 광고.

국제보청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www.kjbr.com

본점: 061-227-994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충장점: 062-227-9970

익산점: 063-851-2422